

여수 자전거보험, 사고 보호막 역할 톡톡

市 4년째 시행... 1억6366만원 보험금 혜택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시가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 여수시민들의 자전거 사고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25일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2건을 포함, 191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해 모두 1억 6366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에 적용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

망·후유장애 3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자전거 사고법정 20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 21일 보험계약 갱신을 통해 앞으로 1년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특히 새로 가입한 보험에는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던 중 자전거사고로 입원 시 입원일당(1일당 1만원, 180일 한도)이 지급되며

사망·후유장애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여수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공영자전거 인프라확대와 보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보험에 관한 세부 보장 내용 및 신청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양시 물빛무대... 눈부신 여름밤 24일 밤 광양시 서천변 무지개분수 야경을 구경하는 시민들. 서천변 무지개분수가 다채로운 음악분수 퍼포먼스,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으로 광양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군 지역발전포럼, 농촌정책 방향 논의

보성군은 25일 “지난 21일 오후 2시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승남 국회의원 주최, 보성군 주관으로 ‘보성군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송광일 국립농수산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 패널 토론, 농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의 농촌정책 방향 및 최근 관광트렌드인 힐링을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귀농·귀촌 전략 방안이 주요 논의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을 넘어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에코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를 반영해 보성군이 가진 천혜자연과 문화유산 및 힐링을 연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재배방식’의 농업 비즈니스 모델, 폐교활용 자연재배 에코힐링 센터 조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섬진강 기차마을’ 전국 명소로

곡성군

민선 5기 곡성군은 ‘부자 곡성, 행복의 군민’을 목표로 대내외적 성장 동력을 키워 농림업 및 관광중흥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역대 부농 육성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농업 대책과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섬진강 기차마을’이 대표적이다. 섬진강 기차마을에는 연간 16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입장수익만 14억5000만원을 군에 안겼다. 허남석 곡성군수(사진)는 “다른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대외협력력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고, 도시지역 병원·학교·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등 도·농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곡성에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까지 220개 농가 달성을 목표로 시작한 ‘역대 부농 육성 프로젝트’는 연간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멘토링

12만5000여명에 달했고 3억5800만원의 농산물 판매액을 기록, 지역축제의 모범으로 자리잡았다. 농어촌 쇠락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4억여 원의 교육지원사업과 1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장학·격려 사업에 쓰고 있다. 또 민선 5기 들어 52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5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7개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도 서서히 정착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인 귀촌가구 109세대가 들어서는 태평지구 전원마을, 2곳의 한옥지구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찾아오는 곡성’을 위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3개 분과 3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내·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공직자 160여명으로 구성된 ‘군정 연구모임’ 16개 팀 등을 통해 지역발전 위한 의견수렴에도 최선을 다했다. 다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지부진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로화 대책 등 일반적인 농촌문제 또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부농 126개 농가 육성

농촌고령화 해결책 고심

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126개 농가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의 소품목 다량생산 체제 정착을 위해 매실·감·고사리·헛개나무 등 선도품목의 재배면적을 늘려가며, 멜론·갯잎·토란·한우를 명품 농산물로 육성할 예정이다. 어느덧 3년째를 맞는 세계장미 축제에는 올해 유료 입장객 수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사업 본격 추진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선언에 부합하는 여수박람회의 정

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기념행사, 미래비전 확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3대 핵심과제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추진되는 14개 기념사업에는 여수

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국제화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30개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제해양관광센터 설립을 통한 동서화합지대 조성, 실크로드시장단 포럼 및 박람회 참여국가 간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협력 사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건강상징 고창 복분자 파워브랜드 자리매김

음료 등 가공제품 생산 1500억원 매출 달성

고창군 내 복분자 가공식품업체들이 올해에만 1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매년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고창군은 25일 “올해 4146농가가 861ha 면적에서 3600t의 복분자를 생산, 복분자주, 기능성 음료, 화장품, 젤리, 한과, 식초 등 40종에 달하는 가공제품을 생산한 58개 기업이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군은 복분자 농가에 대해 신규 식재물을 위한 비닐하우스, 관정, 친환경 농자재 등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하면서 신규 식재면적이

180ha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창복분자 ‘선연’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5회, 국가대표 브랜드에서 3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 715억원을 투입해 복분자산업 특구지역인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복분자농공단지, 황토문화체험관, 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체험관,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집적하는 복분자클러스터를 건립 중이다. 고창복분자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6차 산업화를 목표로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세계적인 복분자 산업의 메카로 조성, 3000억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



지난 24일 오후 고창군 운곡면 한 복분자 밭에서 복분자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

립했다. 군내 복분자 농가들은 복분자가 팔개 외어가면서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으며, 5개 지역농협에서는 수매가 한창이다. 고창복분자는 오랜 세월을 거쳐 기

후풍토에 적응해 온 재래품종이 미세랄이 풍부한 황토 땅 정정지역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특이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 최상품의 복분자로 명성이 높다. /고창=유창희기자 cy0370@

주민 모두가 행복한 마을만들기

정읍 농산물 창작공작소, 상반기 4000만원 매출

정읍시 고부면 남영마을공동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농산물 창작공작소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 규모로 마을에 방치된 폐건물(창고)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리해 사용하고 있는 마을농산물 창작공작소는 소포장 실링기와 포장용지 등 소량 농산물을 포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은 각자 생산한 들깨, 참깨, 기장, 수수, 서리태 등

농산물 이곳에서 소포장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이처럼 농산물창작공작소가 주민화합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에 따라 차후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남영마을 공동체 대표 김세영씨는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작공작소로 활용하고 소득까지 올리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정읍 성황산 등산로 깨끗하게

정읍시 태인면 직원들이 지난 22일 성황산 등산로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태인면은 매분기마다 자체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kwangju.co.kr

조사료용 ‘트리트케일’

순창 하반기 농가 보급

순창군이 영양보리보다 130% 수확성이 높은 조사료 특수품종 ‘트리트케일’을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군은 한우농가의 조사료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조사료용 우수 품종인 ‘트리트케일’ 채종포 0.4ha를 지난해 팔덕면 용산리에 조성해 트리트케일 종자를 채종했다. 트리트케일은 호밀과 밀을 교배한 품종으로, 조사료 수확성이 기존 영양보리보다 1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밀보다 이삭배는 시기는 다소 늦지만 논재배를 할 경우 습해에 강하고 도복 등 내재해성이 강하며, 다른 맥류에 비해 잎 비율이 높아 양질의 조사료로 유망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트리트케일 품종 적응재배를 마친 후 수확성과 기호성이 사료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지난 겨울 채종포를 조성하게 됐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채종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25일 팔덕면 용산리 일원에서 한우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리트케일 채종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올해 10ha의 트리트케일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다음달 5일 개장

군산시는 25일 “선유도 해수욕장이 7월5일 개장해 8월18일까지 손님맞는다”고 밝혔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 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무녀도, 장자도와 다리로 연결돼 자전거 하이킹 코스와 바다낚시, 갯벌체험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섬과 섬을 연결교도 연결한 장

차교와 선유교 위에서 밤에 바라보는 야경은 환상적이라 평가를 받는다. 강승구 군산 부시장은 25일 현장점검을 한 뒤 “선유도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도보 여행길인 구불8길을 개통하는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낚시터 환경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정읍시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강, 하천, 소류지 등 자연적으로 조성된 낚시터 주변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전역 국비사업으로 이달 초 2000만원을 투입해 태인면 동진강 주변과 입암면 지선계 주변 2곳에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

수거함 2개를 설치완료했다. 이로써 정읍지역에는 현재까지 기존 11개소를 포함, 모두 13개소의 친환경 화장실이 설치됐다. 시는 지역별 화장실 관리인들에게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통해 청결을 유지토록 당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부안읍 독거노인에 사랑의 케이크 배달서비스

부안읍이 생일을 맞이한 독거노인을 위해 사랑의 케이크 배달서비스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읍은 이달 초부터 독거노인이 고독한 생일날을 보내지 않도록 케이크와 소량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케이크 배달 등 사랑 나눔 봉사는 노인 20명을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yj0681@

이 케이크와 조그마한 선물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모은 박스와 읍사무소에서 발생한 폐기를 판매한 대금으로 구입했다. 또 노인돌봄비와 읍사무소 주민복지계 직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안=장재용기자 jyj0681@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 복분자 수확체험행사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병철)은 25일 전주시 소비자를 초청해 대한민국 스타팜(Star Farm)으로 지정된 순창군 쌍치면 단비네 농장에서 복분자 수확체험행사를 가졌다. 스타팜은 국가인증을 받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업체 중 모범

이 되는 대표적인 농장으로, 전국적으로 912개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순창군에는 단비네 농장 등 2곳이 있다. 스타팜 선정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선정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